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제5회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

이 중 원*

- I. 조사의 개관
- II. 조사결과 개요
- III. 요약 및 정리

다. 5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1993년에는 그 다섯 번째의 조사결과가 “세계 청년과의 비교를 통해 본 일본의 청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¹⁾되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요약·정리한 것이다.

I. 조사의 개관

일본 총무청 산하의 청소년대책본부에서는 1972년 이래 세계 10여개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청년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

보고서의 머리말²⁾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 조사는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20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거듭함으로써 청소년의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 1) 보고서의 원제목은 “世界の青年との比較からみた日本の青年”(日本 総務庁青少年対策本部, 東京: 1993)이다.
- 2) 참고로 보고서의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5회 세계 청년의식조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간행하게 되었다. 세계 청년의식조사는 1972년의 제1회조사 이래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이 다섯번째가 된다. 제5회조사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의 총 11개국에서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1993년에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자료로 활용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규모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의식에 관한 조사로서는 조사대상국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가정, 학교, 국가·사회 등 청년을 둘러싼 폭넓은 영역의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 이미 다섯번째에 이르러 과거 네차례의 조사결과와의 통시적(通時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등 세계적으로도 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와 특색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가 청소년문제의 관계자들은 물론 국민 각층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사에 협력해주신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93년 12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차장”

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견될 만한 청소년관련 조사연구가 전무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일본 청소년연구의 현실로부터 귀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 생활·의식의 이해에 기초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직장생활과 교우관계, 여가활동,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관, 인생관 등 모두 8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문항

의 수는 모두 51개(세부분항을 포함하면 69개)에 달하는데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³⁾

조사의 방법은 조사대상 국가(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등 11개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3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각 국가별 표본의 추출방법과 표본수 및 조사대행 기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표본추출방법, 표본수 및 조사기관

표본추출 방법		표본수	조 사 기 관
한 국	층화 3단확률추출	1,000	한국개발조사연구소
일 본	층화 2단 무작위추출	1,053	(주) 일본리서치센터
미 국	중복확률 비례추출	1,002	Kane, Parsons & Associates, Inc.
영 국	할당추출	1,070	Social Surveys (Gallup Poll) Ltd.
독 일	할당추출	2,784	EMNID Institut GmbH & Co.
프랑스	할당추출	1,018	Faits et Opinions
스웨덴	층화 무작위추출	1,000	Swedish Institute of Public Opinion Research Ltd.
필리핀	층화 다단추출	1,000	Asia Research Organization, Inc.
태 국	층화 다단추출	1,000	CSN & Associate Co. Ltd. (Gallup)
브라질	4단확률 지역추출	1,424	Instituto Gallup de Opinial Publica
러시아	층화 다단추출	1,060	Romir Ltd.

는 응답이 다수였으나 “있다”는 반응도 4할에

II. 조사결과 개요

1. 가정관계

○ 부모-자녀간의 중대한 의견의 대립

최근 2,3년동안 부모님과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없다”

[문 1] (친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 최근 2, 3년 동안 부모님과 심각한 의견의 대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있 다	32.6	35.2	39.0
2. 없 다	66.5	63.7	61.0

3) 단, 본고에서 다루는 소개하는 문항은 일본어로 된 조사표를 원본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에서 실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용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각 문항별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그림에서만 “NA”로 표기하였다.

달하여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대립이 있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던 우리의 문화전통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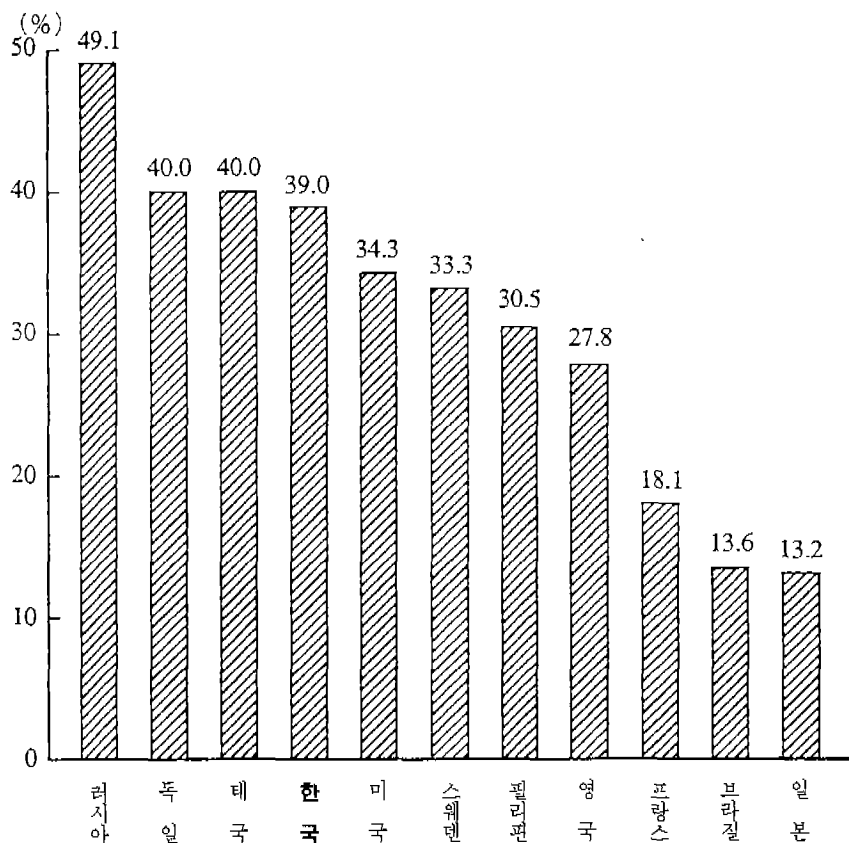
각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대립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러시아, 독일, 태국에 이어서 네번째이다. 그러나 독일, 태국과의 차이가 1%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국가중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로 조사에 참여한 러시아에서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립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최하위인 일본은 13.2%로서 우리나라의 1/3 남짓한 수준이다. 40%내외의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국가들은 모두 체제의 해체(러시아), 통일(독일), 경제성장(태국) 등의 요인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의 자녀지도 방식 및 가정내 역할에 관하여 모두 4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3문항

〈그림 1〉 부모-자녀간의 중대한 의견의 대립(“있다”는 응답의 비율)



[문 2] 당신의 친부모님에 관해서 다음의 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a. 자녀의 지도나 교육 등에 있어서 자신있는 태도를 취한다	71.8	76.1
b.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관해서 지도한다	84.8	90.1
c. 가족들과 집안일에 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57.4	82.4
d. 가정내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87.7	—

주: 수치는 1993년의 각 항목별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임.

은 부친, 모친 모두에 관한 문항이고 나머지 하나(‘가정내의 주도권’)는 부친과 관련된 문항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공통문항인 ‘자신있는 태도’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 ‘대화하는 시간’의 3문항 모두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쪽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화하는 시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응답결과를 각국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먼저 아버지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에서 ‘자신있는 태도’는 8위,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는 2위, ‘대화하는 시간’은 8위, ‘가정내의 주도권’은 3위이다. 이것은 한국의 부친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내의 주도권이나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권 국가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필리핀과 태국이 모든 문항에 걸쳐 1~3위권내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정내의 주도권’에 있어서 아시아권 국가들이 1~4위까지 차지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권이 상대적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임을 반영하고 있다.

어머니에 관한 응답결과도 대체로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은 “그렇다”는 응답비율에서 ‘자신있는 태도’에서는 10위,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는 3위, ‘대화하는 시간’에서는 8위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관한 응답결과에서는 필리

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국가들이 모든 항목에 걸쳐 1~5위내에 든 것이 특징적이다.

○ 이상적인 부친상

[문 3] 다음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a, b의 항목들 중에서 각각 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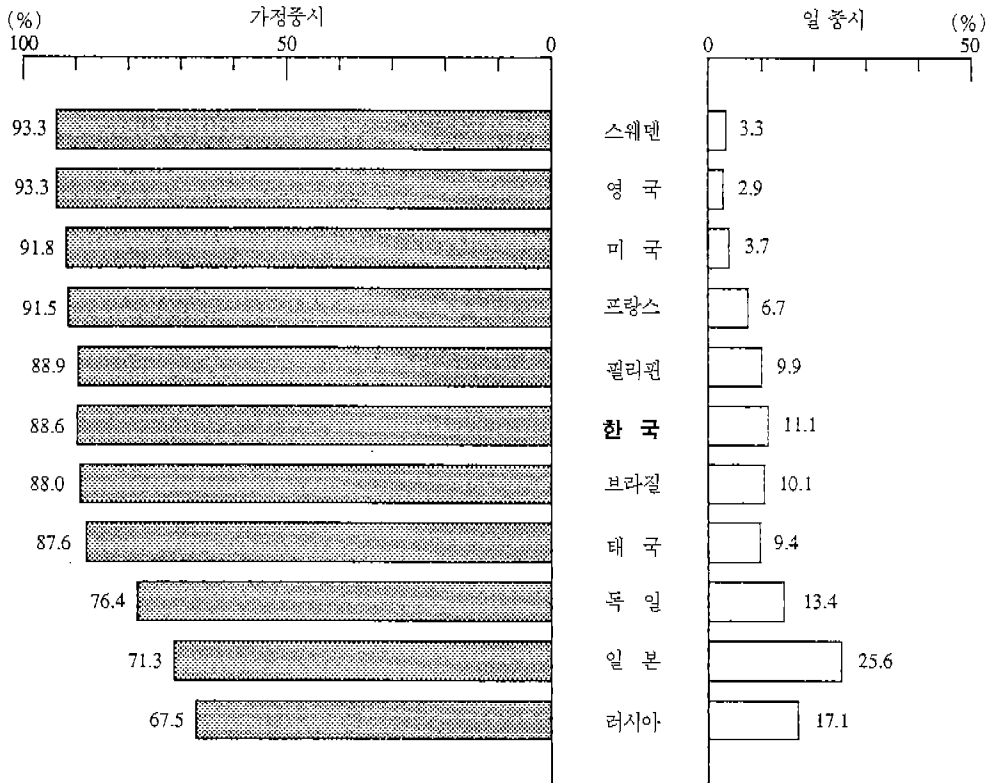
	1993
a 1. 일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아버지	3.9
2. 대체로 가정생활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아버지	7.2
3. 대체로 일보다도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아버지	36.1
4. 가정생활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아버지	52.5
b 1. 자녀에게 엄격한 아버지	22.8
2. 자녀에게 친근한 친구와 같은 아버지	76.9

주: 1993년에 문항내용이 변경됨.

어떤 유형의 부친이 바람직스러운가에 관해서 a ‘일중시형-가정중시형’ b ‘엄격형-친근형’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a ‘일중시형-가정중시형’에서 ‘가정중시형’(선택지 3,4의 합계)의 부친을 선호하는 비율이 88.6%로서 ‘일중시형’(선택지 1,2의 합계)의 11.1%를 압도하였다. 각국비교를 보면, 모든 국가에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정중시형’의 부친을 선호하였는데, ‘가정중시형’을 선택한 응답비율에서 한국은 스웨덴(93.3%), 영국(93.3%), 미

〈그림 2〉 이상적인 부친상 : 가정중시형 - 일중시형



국(91.8%), 프랑스(91.5%), 필리핀(88.9%)에 이어서 6위이며 러시아가 67.5%로서 가장 낮았다.

b ‘엄격형-친근형’ 문항에서는 ‘친근형’의 부친을 선호하는 응답이 76.9%로서 ‘엄격형’(22.8%)의 3배 이상에 달하였다.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엄격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급

격한 서구화의 과정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 속해있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전통적인 부모상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

[문 4] 나이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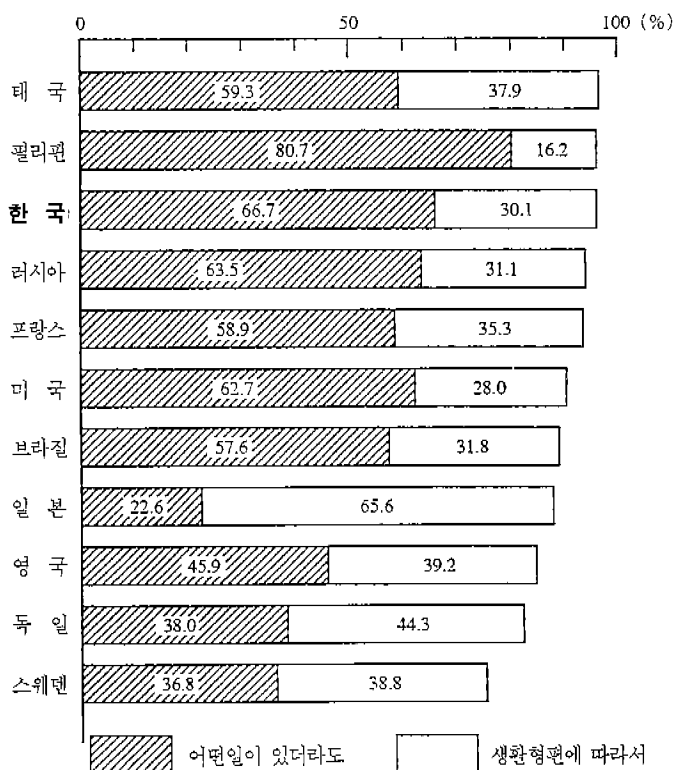
	1983	1988	1993
1.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69.5	69.4	66.7
2. 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26.9	28.3	30.1
3. 가급적 부모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	2.0	1.4	2.8
4. 부모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0.7	0.3	0.3

나이드신 부모님의 부양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가 66.7%로서 가장 많고 “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30.1%)가 그 다음이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적극적 부양형’은 감소경향에 있는 한편, “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소극적 부양형’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 부양형’과 ‘소극적 부양형’의 합계가 전체의 7할을 넘고 있는데, 이 양자의 합계에서 한국은 태국, 필리핀에 이어서 3위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로서, 브라질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의사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면서도 유독 일본의 ‘적극적 부양형’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11개국중 최하위)이 특징적이다.

〈그림 3〉

나이드신 부모님의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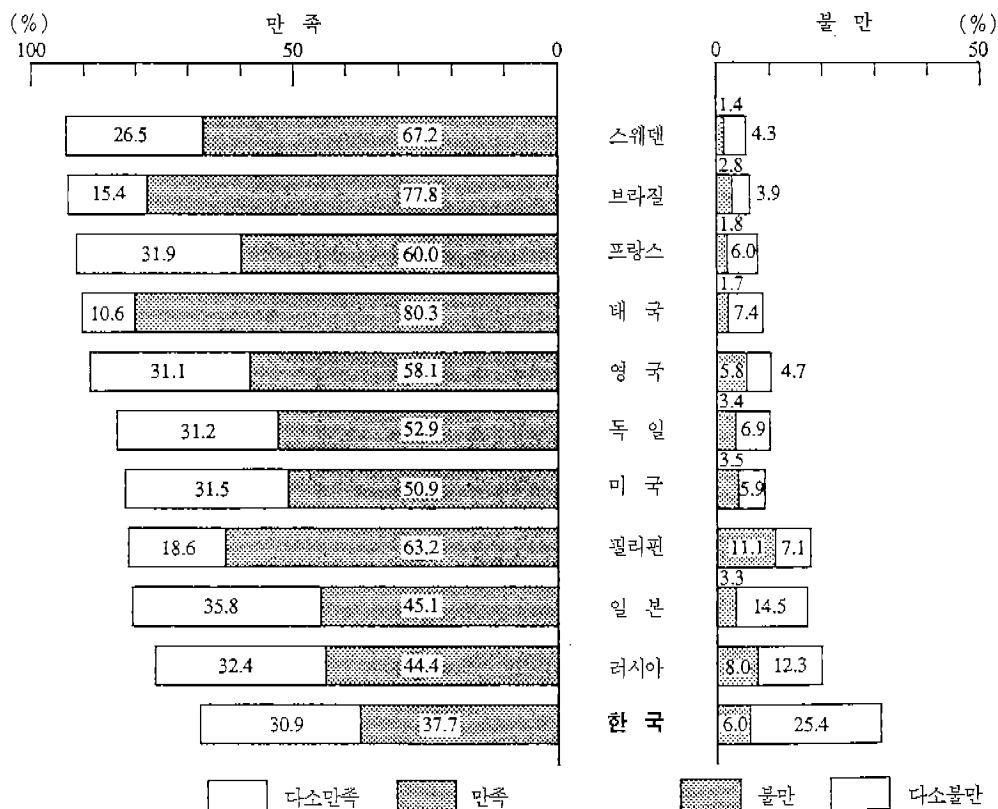
○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만족”이 37.7%, “다소 만족”이 30.9%로 이 양자를 합한 ‘만족형’(68.6%)이 ‘불만형’(31.4%)을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연도별

[문 5] 당신은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만족	37.3	36.2	37.7
2. 다소 만족	36.0	34.6	30.9
3. 다소 불만	19.9	23.6	25.4
4. 불만	5.8	5.0	6.0

〈그림 4〉 가정생활 만족도



변화에서는 “다소 만족”의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다소 불만”의 점진적인 증가현상이 두드러져서 전체적으로 ‘불만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비교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만족형’이 ‘불만형’을 상회하였다. 한국은 ‘만족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불만형’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 ‘불만형’이 가장 적은 스웨덴의 5배 이상, 이웃국가인 일본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 가정생활 불만의 이유

앞 문항에서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만의 구체적인 이유를 복수응답식으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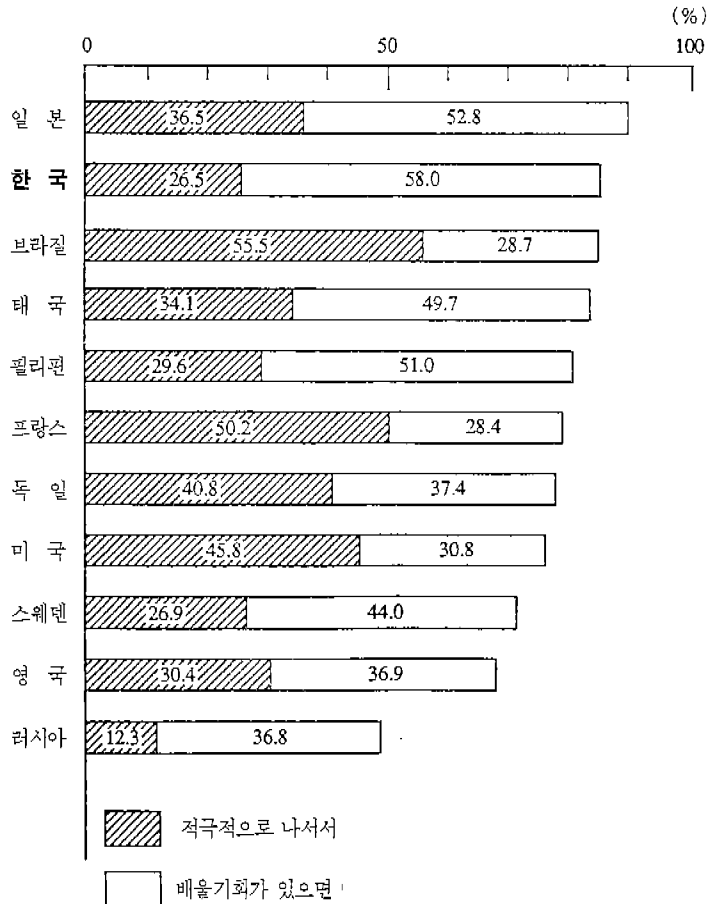
[문 5-1] ([문 5]에서 3, 4로 응답한 경우) 불만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중 해당되는 것을 있는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993
1. 수입이 적다	28.3
2. 부모의 직업이 좋지 못하다	11.1
3. 집안에 갈등이 있다	30.3
4.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다	11.5
5.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37.3
6.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19.1
7.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	14.6
8. 집 주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14.3
9. 집이 너무 협소하다	16.2
10. 별다른 이유없이	28.0
11. 기타	1.0

주 : 1983, 1988년의 응답결과는 생략함.

〈그림 5〉

학교 졸업후의 학습의욕



해부쪽'이 37.3%로서 1위이고 그 다음이 '집안의 갈등'(30.3%), '수입이 적다'(28.3%)였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집안의 갈등'이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에서, '수입이 적다'가 3개국(스웨덴, 필리핀, 태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반면, '부모의 이해

부족'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1위로 나타났다(일본은 "별다른 이유없이"가 1위).

2. 학교관계

○ 학교졸업후의 학습의욕

[문 6]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졸업한 사람은 지금부터)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까?

	1983	1988	1993
1.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갖고 싶다	33.8	33.3	26.5
2.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	53.2	53.1	58.0
3.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더라도 참가하고픈 생각이 없다	12.4	12.9	15.0

졸업후의 학습의욕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58.0%)가 가장 많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갖고 싶다”(36.5%)가 그 다음이다. 연도별 비교를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갖고 싶다”는 응답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더라도 참가하고픈 생각이 없다”의 응답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학습의욕이 다소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학습의욕이 있는 청소년(선택지 1, 2의 합계)의 비율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2위이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태국, 필리핀의 순서로서 주로 아시아권국가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문 7] 우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두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983	1988	1993
1. 신분이나 가문, 부모의 지위	11.3	16.5	18.7
2. 개인의 재능	81.6	77.7	77.4
3. 개인의 노력	74.0	71.1	71.1
4. 학력	25.3	28.0	20.9
5. 운이나 기회	3.6	4.7	4.6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관해서 두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재능”(77.4%)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노력”(71.7%), “학력”(20.9%)의 순으로서 주로 개인적인 자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집안의 배경(“신분이나 가문, 부모의 지위”)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재능, 노력, 학력과 같은 개인적 자질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 독일, 러시아의 3개국 청소년들이 “개인의 재능”을, 나머지 8개국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노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응답결과에서 특이한 사항은 “운이나 찬스”를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는 4.6%로서 극소수인 반면, 일본에서는 절반 이상(50.2%), 독일(30.8%), 러시아(33.7%)에서는 3할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학 졸업자를 평가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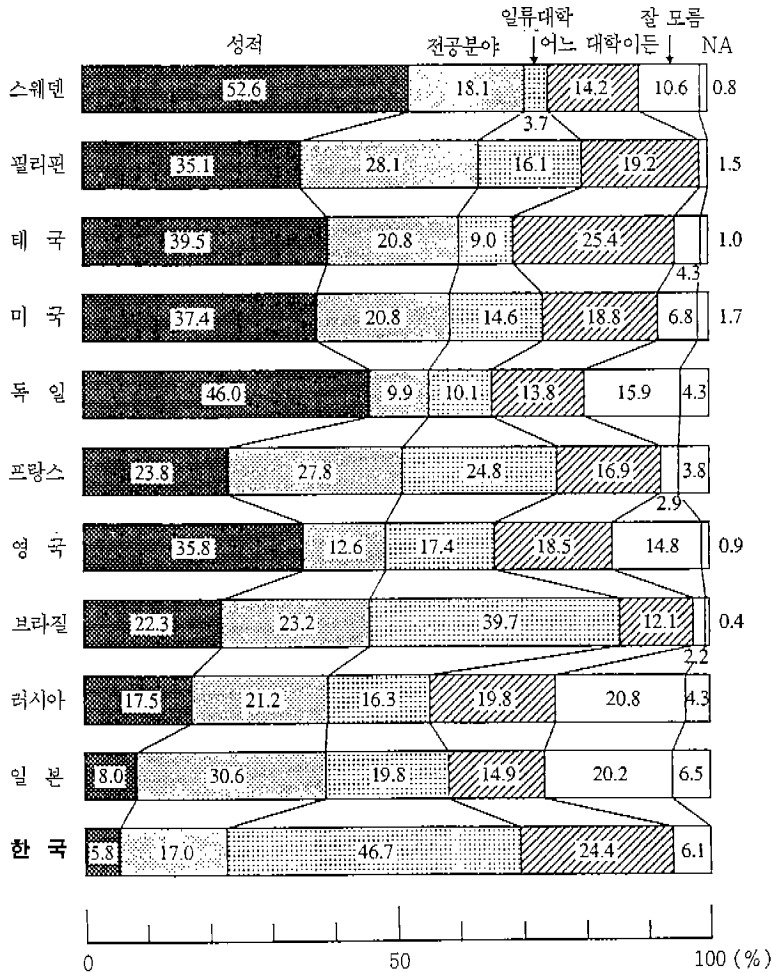
사회에서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류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점”(46.7%)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된 반면, 대학의 전공이나 성적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대학에서의 성적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학 졸업 그 자체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문 8] 사람들은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데 다음 중 어떤 측면을 가장 중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83	1988	1993
1. 일류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점	45.2	52.1	46.7
2. 어느 대학이든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12.4	18.6	24.4
3.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나 하는 점	13.7	10.3	5.8
4. 대학에서 어떤 전문분야를 배웠는가 하는 점	19.9	16.0	17.0
5. 잘 모르겠다	6.7	2.2	6.1

〈그림 6〉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기준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은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의 응답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반면, ‘대학 성적’(11위)은 최하위, ‘전공분야’는 10위의 저조한 응답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이나 전공보다는 일류대학 출신만을 선호하는 한국의 기형적인 대학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학교생활 만족도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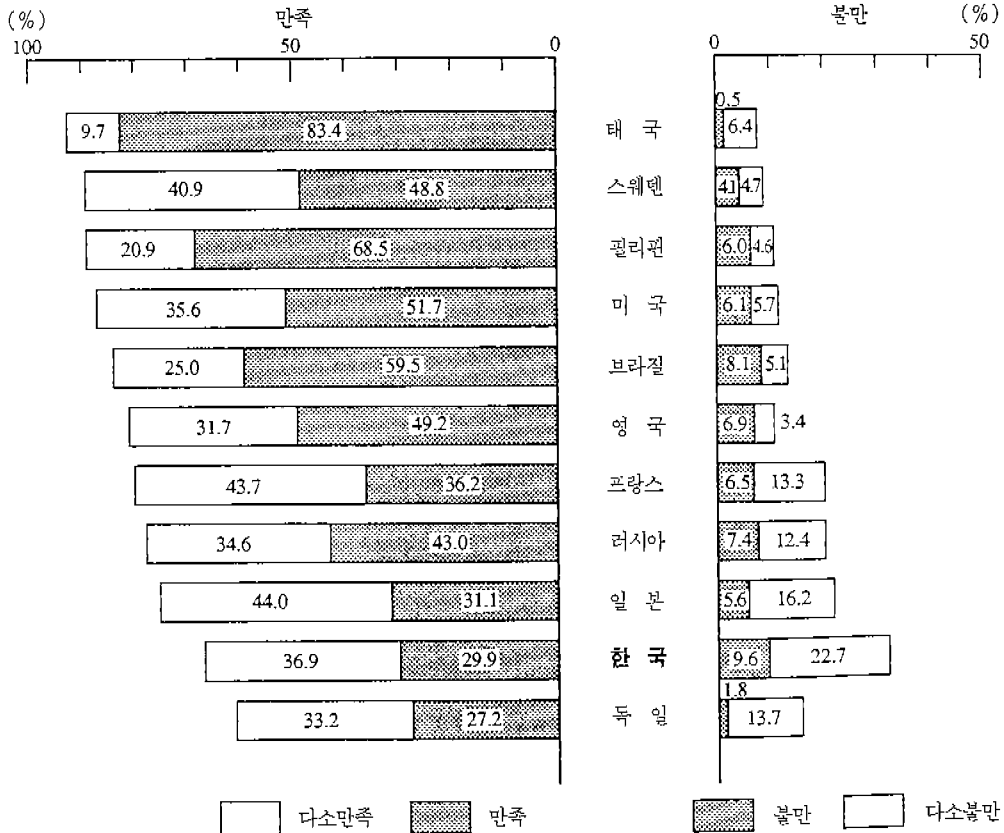
교생활의 만족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한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형’(“만족”과 “다소만족”의 합계)이 66.8%로서 ‘불만형’(32.3

[문 9] (학생인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만족	32.1	26.4	29.9
2. 다소 만족	35.2	37.1	36.9
3. 다소 불만	21.9	24.4	22.7
4. 불만	7.6	9.9	9.6

〈그림 7〉

학교생활 만족도



%)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에서 ‘만족형’과 ‘불만형’의 비율에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은 ‘불만형’의 비율이 11개국중 가장 높은 한편, ‘만족형’의 비율은 독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조사대상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끼는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일 이외의 생활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63.4%로서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비율(35.6%)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88년까지는 두 항목의 응답비율이 거의 균형상태에 있다가 1993년에 들어서면서 일 이외의 생

[문 10] (직업이 있는 경우) 당신은 일과 일 이외의 생활 중 어느쪽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십니까?

3. 직업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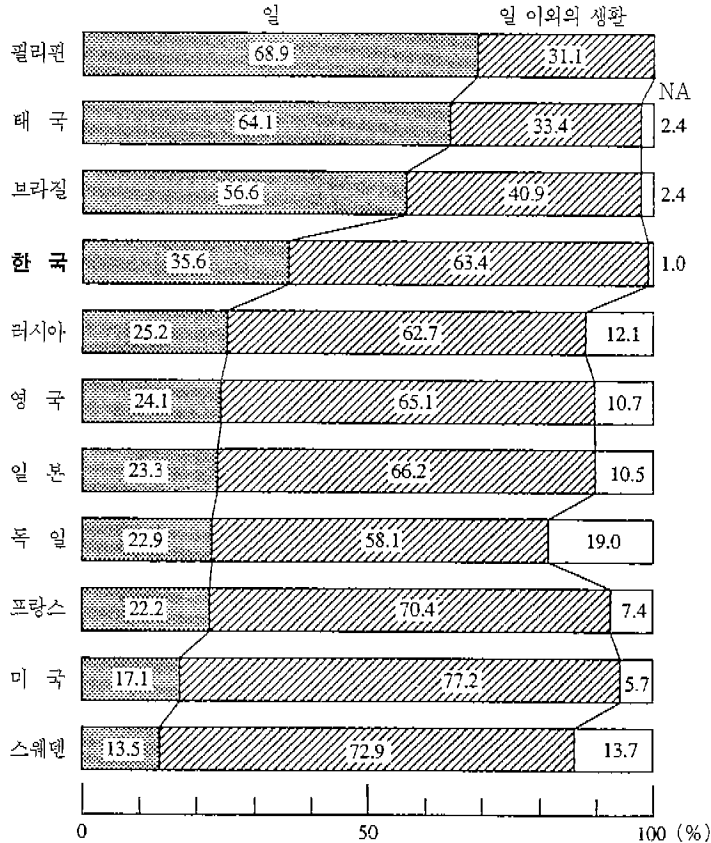
○ 일과 삶의 보람

일과 일 이외의 생활중 어느쪽에서 보람을 느

	1983	1988	1993
1. 일에서	46.7	45.2	35.6
2. 일 이외의 생활에서	43.0	47.5	63.4

〈그림 8〉

삶의 보람 : 일과 일 이외의 생활



활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일보다는 여가와 개인적 생활을 중시하는 한국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에서 한국은 필리핀(68.9%), 태국(64.1%), 브라질(56.6%)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은 '일'을, 선진국의 청소년들은 '일 이외의 생활'을 선택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전직경험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제까

지의 전직경험을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전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60.0%로서 전직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비율(39.4%)을 2할 가량 앞서고 있다. 1983년에 전직 경험자가 전체의 1/2이었

[문 11] (직업이 있는 경우) 당신은 지금까지 몇번 직장(직업)을 옮기셨습니까?

	1983	1988	1993
1. 한번도 옮기지 않았다	50.0	43.8	39.4
2. 한번 (지금 직장이 두번째)	21.7	24.9	27.1
3. 두번 (지금 직장이 세번째)	11.5	17.1	18.2
4. 세번 (지금 직장이 네번째)	9.0	6.0	6.8
5. 네번 이상	7.4	7.4	7.9

음을 감안하면 해가 갈수록 한국청소년들의 직업이동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전직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에서 일본이 62.7%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독일(54.1%), 필리핀(52.9%)의 순이며 한국은 7위로서 중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직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3.2%에 불과하여 전체 조사대상국가중 청소년들의 직업이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정착의식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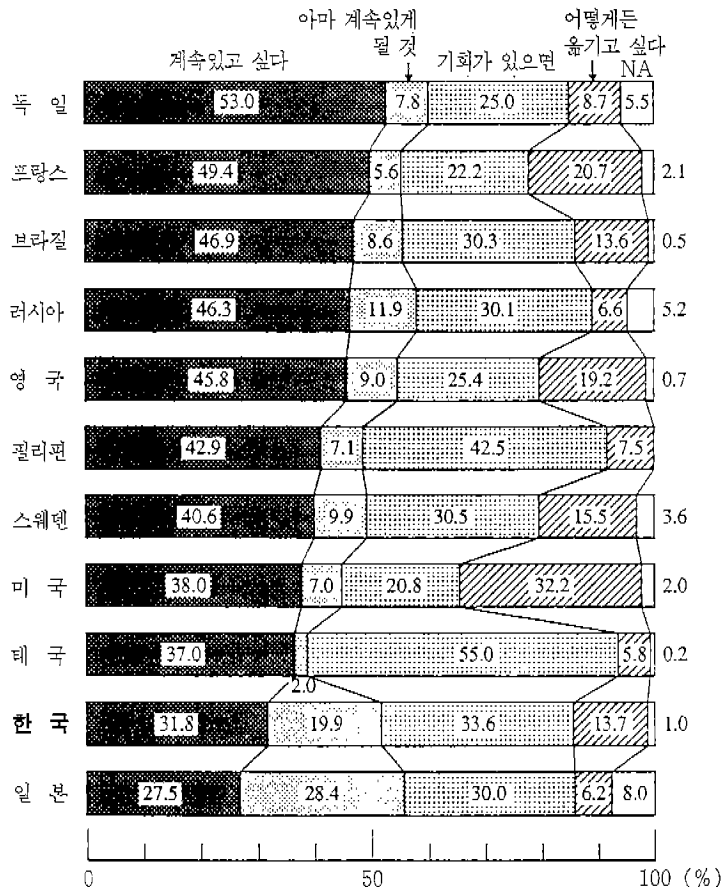
근무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선택지 2, 3, 4의 합계)이 67.2%로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청소년(31.8%)의 배 이상에 달하였

[문 12] (직업이 있는 경우) 지금의 직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실 생각입니까?

	1983	1988	1993
1. 계속 있고 싶다	44.7	46.1	31.8
2. 기회가 있으면 옮기고 싶다	30.3	25.8	33.6
3. 옮기고 싶지만 아마 계속 있게 될 것이다	15.6	19.8	19.9
4. 어떻게든 옮기고 싶다	7.4	6.5	13.7

〈그림 9〉

직장 정착의사



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직업 정착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비율에서 독일이 53.0%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49.4%), 브라질(46.9%) 등의 순서이며 한국은 최하위인 일본(27.5%) 다음으로 적었다. 앞 문항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청소년들은 전직의사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장을 옮기는 청소년의 비율은 조사대상국가중 가장 적게 나타나 일본 기업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 직장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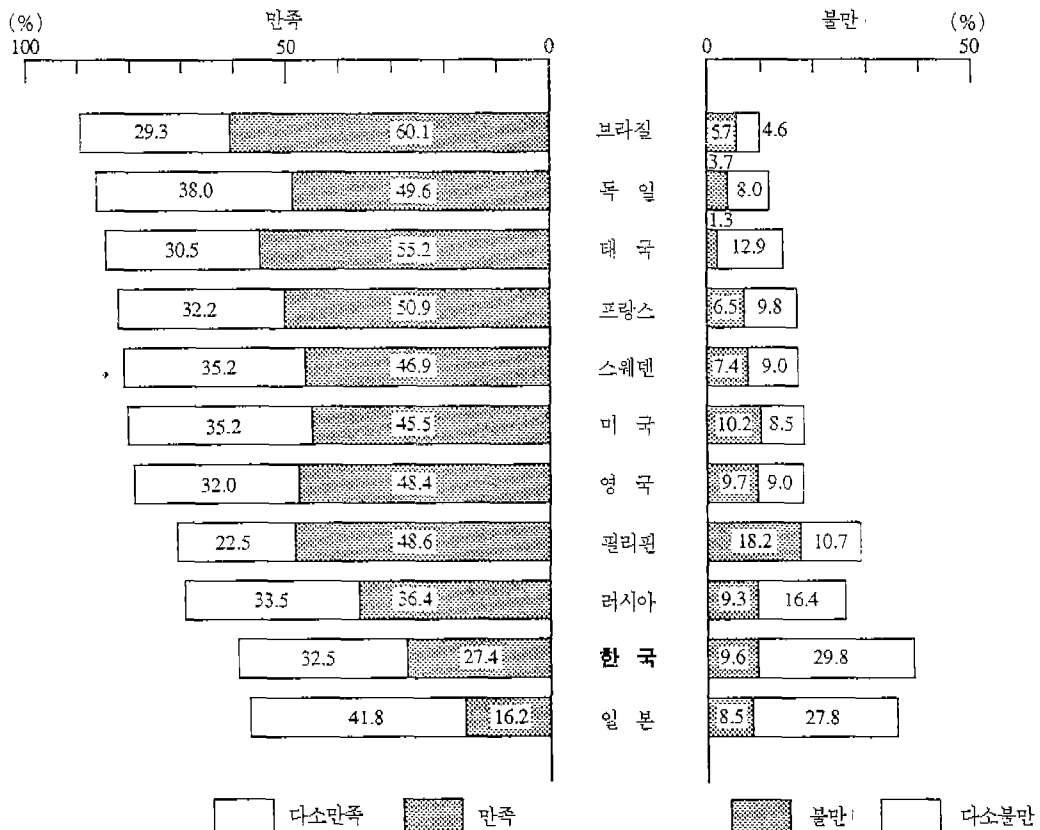
직장생활에 관한 만족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만족”과 “다소 만족”을 합한 ‘만족형’의 비율이 59.9%로서 ‘불만형’의 39.4%를 앞서고 있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다소 만족”의 감소와 “다소 불만”의 점진적인 증가

[문 13] (직업이 있는 경우)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만족	30.7	28.1	27.4
2. 다소 만족	41.0	41.0	32.5
3. 다소 불만	17.2	22.6	29.8
4. 불만	7.8	7.4	9.6

〈그림 10〉

직장생활 만족도



현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불만형’의 비율이 높아
가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은 ‘만족형’의 비율이 10
위로서 최하위인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불만형’의 비율은 조사대상 11개국중 1위를 기
록하고 있다.

○ 일을 하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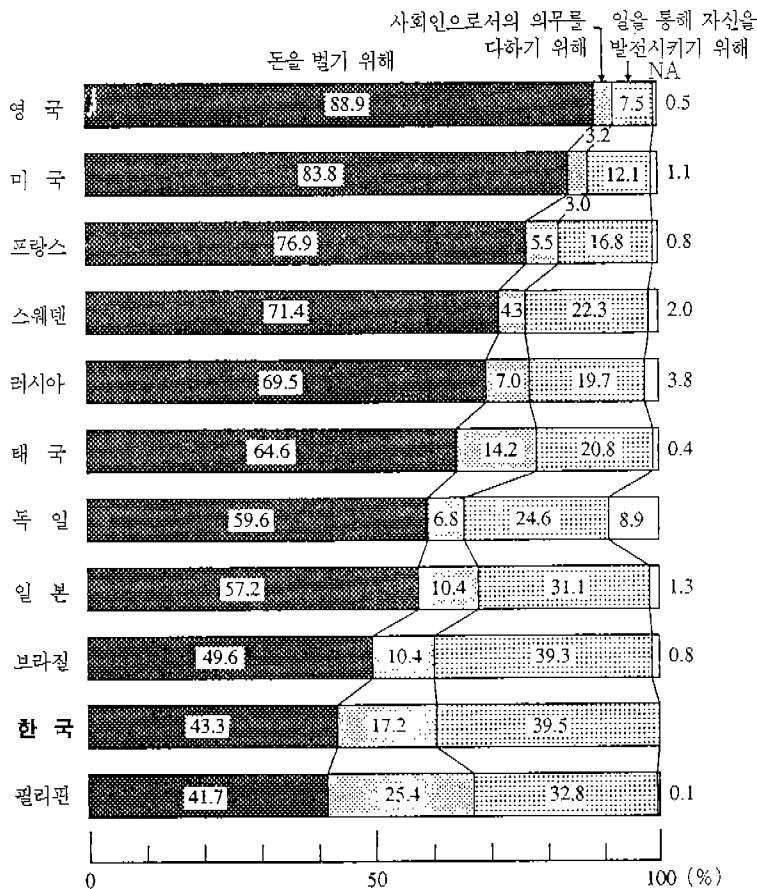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
였다.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가 43.4%로
가장 많고 ‘자신의 발전’(39.5%)이 그 다음이었
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사회인으로서의 의무’ 응

[문 14]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3	1988	1993
1. 돈을 벌기 위해	37.8	44.7	43.4
2.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3.3	18.0	17.2
3. 일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37.5	36.7	39.5

〈그림 11〉

일을 하는 목적



답율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과 ‘자신의 발전’의 응답율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근로관이 사회보다는 개인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모든 국가에서 ‘수입’의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영국(88.9%), 미국(83.8%), 프랑스(76.9%), 스웨덴(71.4%) 등 구미국에서 70% 이상의 응답율을 보인 반면, 브라질(49.6%), 한국, 필리핀(41.7%)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50%미만의 응답율을 기록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상사와의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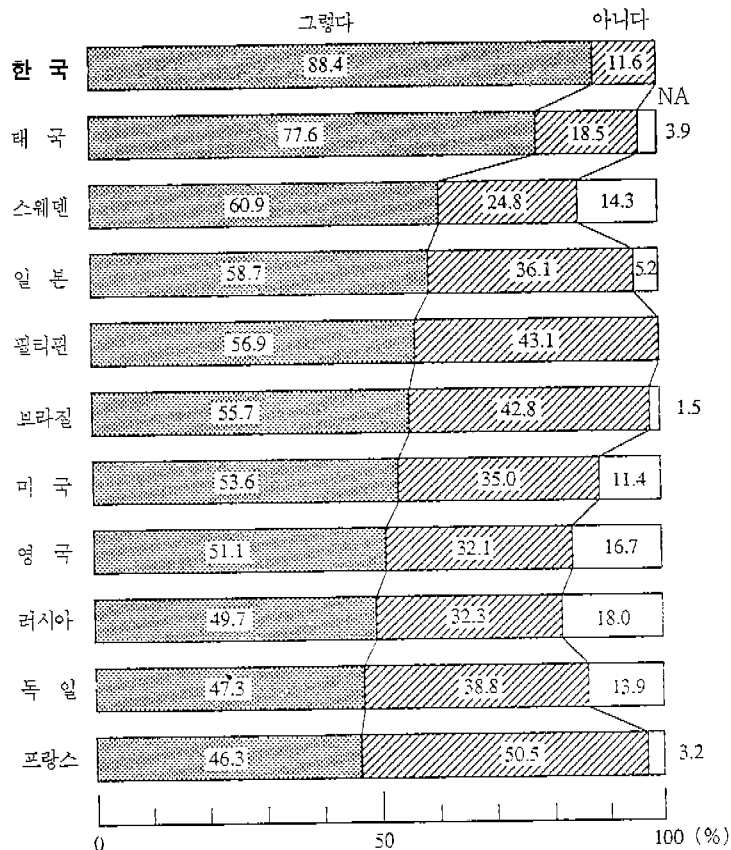
[문 15]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상사와 직무 이외의 접촉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983	1988	1993
1. 그렇다	92.0	92.0	88.4
2. 아니다	5.7	6.9	11.6

상사와 직무 이외의 접촉을 갖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대다수(88.4%)를 차지하여 직장내에서 업무 이외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그림 12〉

직무 이외의 상사와의 접촉(“좋다”)



을 나타내었다. 연도별로는 찬성의 응답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각국비교를 살펴보면, 찬성하는 응답은 한국과 태국에서 현저하게 높은 반면, 반대하는 응답은 프랑스, 필리핀, 브라질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근로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1.5%로서 늘면서 지내겠다는 응답(18.4%)의 4배 이상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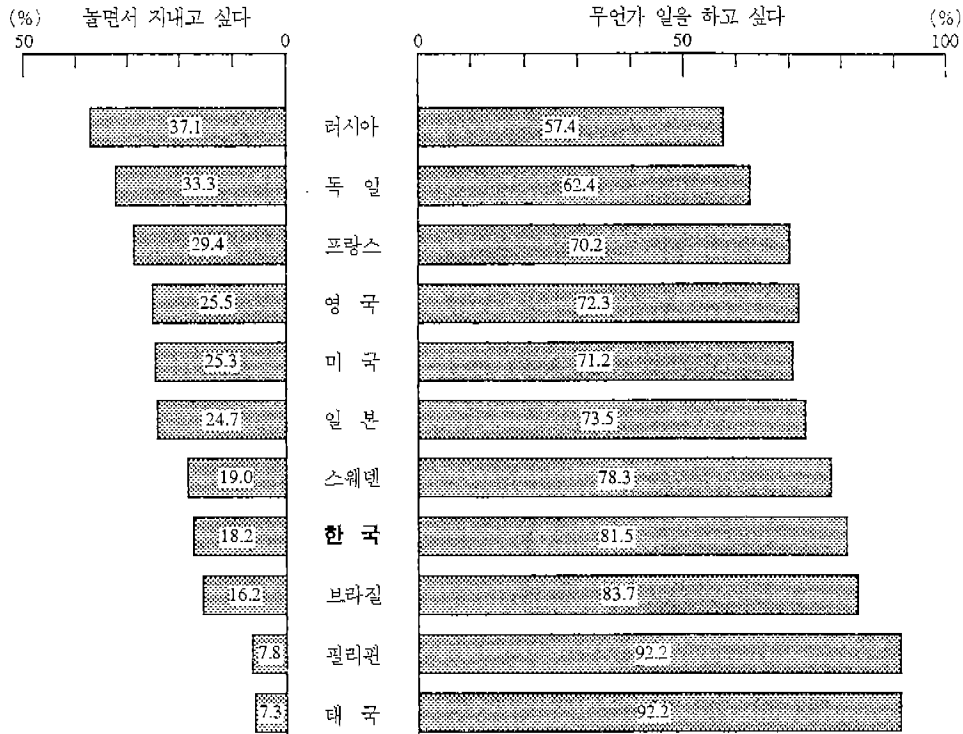
각국비교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다’가 ‘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특히 선진국에 비해 태국, 필리핀, 브라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 16] 다음 두가지 중 당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어느쪽입니까?

	1983	1988	1993
1. 일을 하지 않아도 즐기며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늘면서 보내고 싶다	17.6	17.6	18.2
2. 일을 하지 않아도 즐기며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더라도 무언가 일을 하고 싶다	81.2	81.2	81.5

〈그림 13〉

근로관



4. 친구·지역사회관계

○ 친한 친구의 유무

[문 17] 당신은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다음중 어떤 친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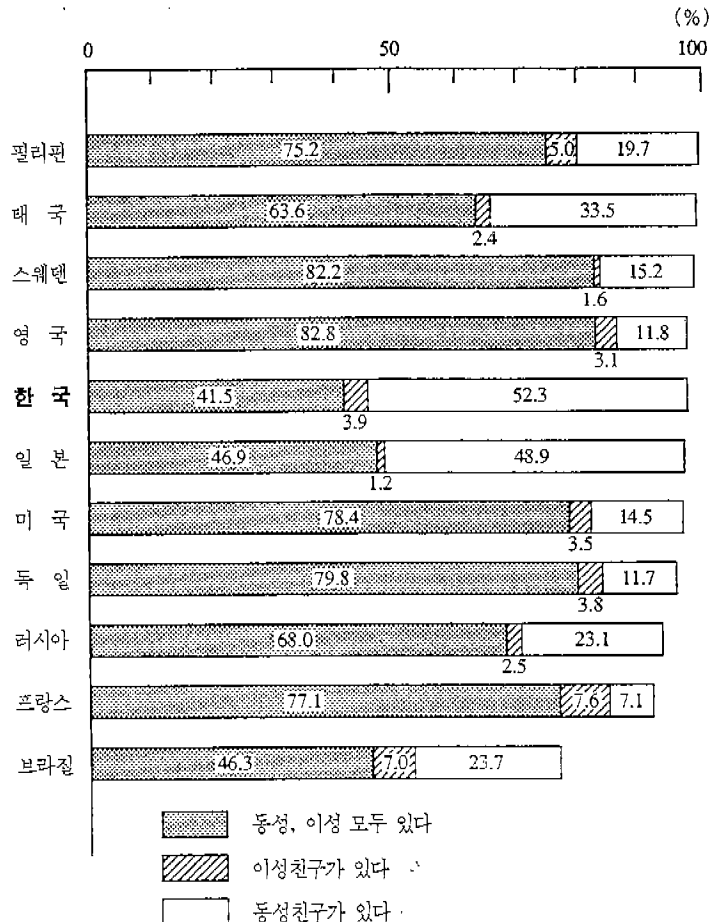
	1983	1988	1993
1. 동성의 가까운 친구가 있다	53.0	55.3	52.3
2. 이성의 가까운 친구가 있다	1.7	2.4	3.9
3. 양쪽 모두 있다	42.2	40.3	41.5
4. 없다	3.1	1.8	2.3

친한 친구의 유무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동성’의 친구가 있다(52.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양쪽 모두 있다”(41.3%)가 그 다음이었으며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연도별로는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브라질을 제외한 10개국에서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양쪽 모두 있다”는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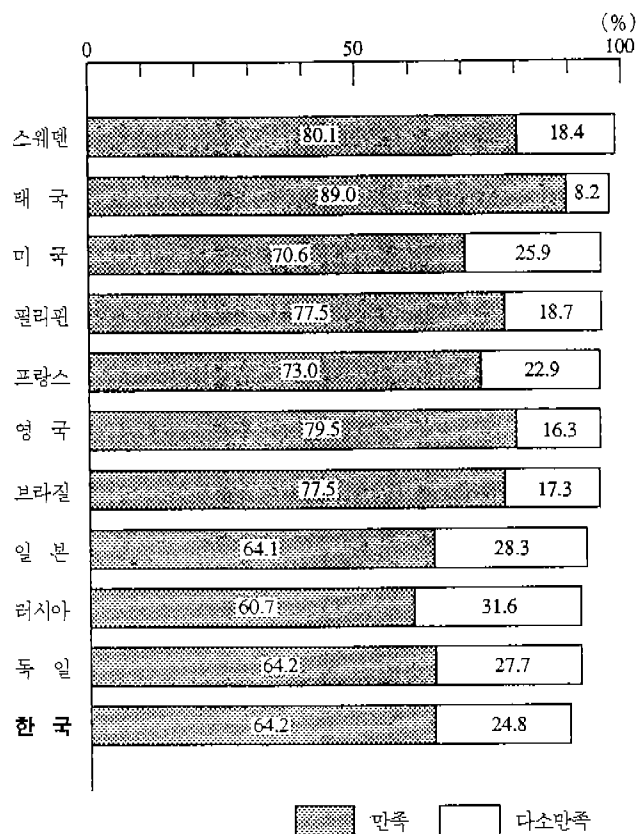
〈그림 14〉

친한 친구의 유무(“있다”는 응답의 비율)



<그림 15>

친구관계 만족도



“동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이성보다는 동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친구관계 만족도

[문 18]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만족	62.0	64.8	64.2
2. 다소 만족	26.6	25.2	24.8
3. 다소 불만	7.3	7.8	9.4
4. 불만	1.0	1.4	1.6

친구관계에 관한 만족도를 4단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만족”이 64.2%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은 11% 정도에 불과했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불만형’ (“다소 불만”과 “불만”의 합계)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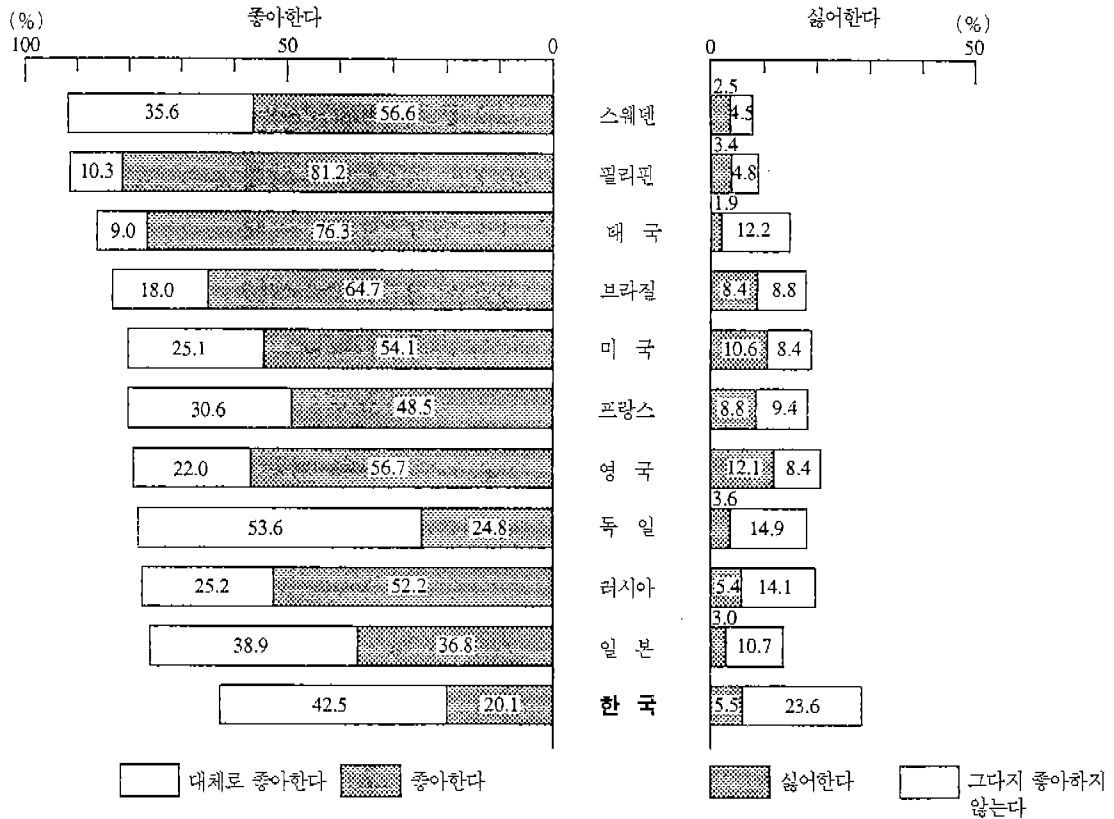
각국비교를 보면, ‘만족형’의 비율에서 한국이 8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 지역사회 애착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좋아

〈그림 16〉

지역사회 애착도



[문 19]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나 동네를 좋아하십니까?

	1983	1988	1993
1. 좋아한다	24.2	24.4	20.1
2. 대체로 좋아한다	35.8	37.7	42.5
3.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24.2	25.5	23.6
4. 싫어한다	9.2	8.9	5.5
5.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6.4	3.4	8.3

한다'(선택지 1,2의 합계)는 응답이 62.6%로서 '싫어한다'(선택지 3,4의 합계)는 응답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대체로 좋아한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한편, "싫어한다"는 응답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한국은 '좋아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은 반면, '싫어한다'는 응답율은 1위를 나타내어 한국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국가들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지역사회 영주의사

[문 20]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도 거주할 생각입니까?

	1983	1988	1993
1. 그렇다	33.9	36.9	41.4
2. 옮기고 싶다	47.3	47.2	35.0
3. 어느쪽이라도 무방하다	17.5	14.9	23.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계속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영주의

사가 있다는 응답이 41.4%로서 “옳기고 싶다”는 응답(35.0%)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영주의사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비율이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이주의사를 나타내는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영주의사가 있다는 응답율에서 1위인 필리핀(72.2%)을 비롯한 6개국에서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40%대의 하위권(9위)에 속하고 있다.

5. 국가·사회관계

○ 사회에 대한 만족도

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

하였다. 한국에서는 거의 절반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다소 불만”(48.1%)으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불만”이 31.5%로서 양자를 합한 ‘불만형’이 전체의 약 8할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만족형’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불만형’의 급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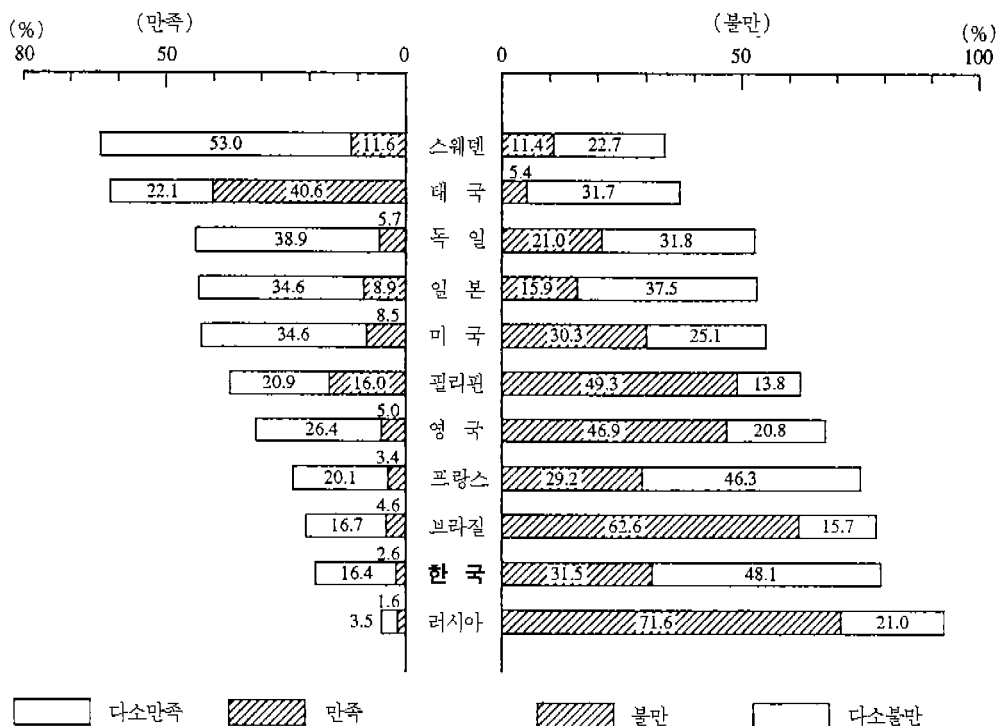
각국비교를 보면, ‘만족형’의 비율이 많은 것은

[문 21] 당신은 자국의 사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983	1988	1993
1. 만족	12.5	2.7	2.6
2. 다소 만족	40.5	14.5	16.4
3. 다소 불만	27.2	45.2	48.1
4. 불만	15.5	34.1	31.5

〈그림 17〉

사회에 대한 만족도



스웨덴, 태국의 2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국에서는 모두 ‘불만형’이 절반을 넘고 있다. 한국은 ‘불만형’의 비율에서 현재 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나 한국청소

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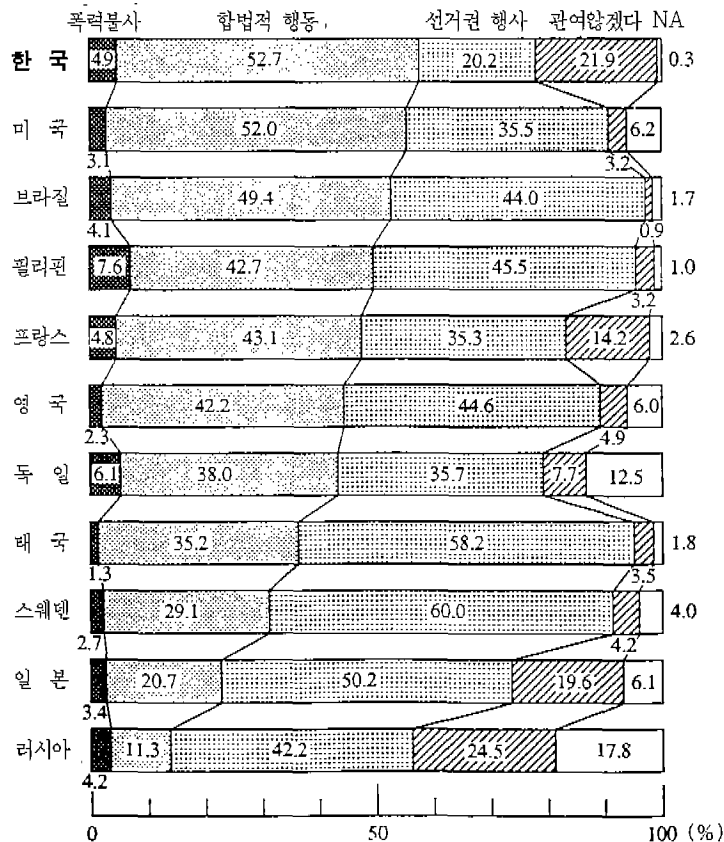
○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의 태도

[문 22]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당신이라면 다음중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있다고 가정하고 답해주시시오.)

	1983	1988	1993
1.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18.8	17.6	20.2
2. 합법적인 범위(진정·서명운동·데모·스트라이크 등)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47.5	55.6	52.7
3.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도 사용한다	5.0	7.8	4.9
4.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0.0	17.8	21.9

〈그림 18〉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때의 태도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적 행동형’(52.7% ; 선택지 2)에 속했고 ‘비관여형’(21.9% ; 선택지 4)과 ‘소극적 행동형’(20.2% ; 선택지 1)이 그 다음으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으며 폭력을 배제하지 않는 ‘폭력불사형’(선택지 3)의 응답은 소수(4.9%)였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소극적 행동형’과 ‘비관여형’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6개국에서 ‘소극적 행동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스웨덴, 태국, 일본에서는 반수를 넘고 있다. ‘적극적 행동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5개국으로 그중 한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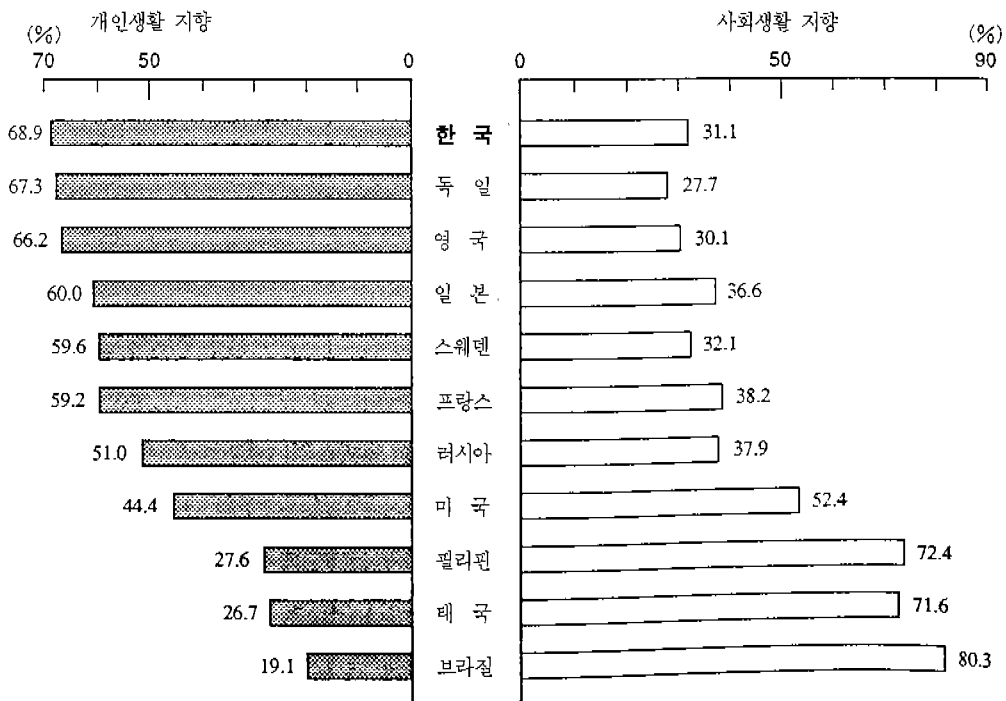
에서 반수를 넘고 있다. ‘폭력불사형’과 ‘적극적 행동형’의 비율을 합산해 보면, 한국이 비교대상 11개국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미국, 브라질, 필리핀의 순이며, 일본과 러시아가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의 불만을 참고 인내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활지향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생활 지향’인가 ‘사회생활 지향’인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개인생활 지향’(선택지 1)이 68.9%로서 ‘사회생활 지향’(31.1%)의 배 이상에 달하고 있

〈그림 19〉

생활지향 : 개인생활 - 사회생활



[문 23] 자신의 생활과 사회의 관계에 관해서 당신의 생각은 다음중 어느쪽에 더 가깝습니까?

	1983	1988	1993
1.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52.8	51.7	68.9
2.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도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	40.0	47.7	31.1

다. 연도별로는 ‘개인생활 지향’의 응답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브라질, 필리핀, 태국, 미국에서는 ‘사회생활 지향’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 청소년들과 더불어 ‘개인생활 지향’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개인생활 지향’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문항의 응답결과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높은 불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자국사회의 문제

자국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복수응답식으로 질

[문 24] 당신은 다음중 어떤 것이 자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1993
1. 모든 일들이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고 집안이 너무 중시된다	71.8
2. 성별이나 인종 등 선천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이 있다	23.7
3. 학력에 따라 수입이나 직업에 격차가 있다	75.9
4. 조직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18.5
5.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다	55.4
6.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68.2
7.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한다	53.8
8. 젊은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21.6
9. 치안 풍속이 문란하다	40.0
10. 취직이 어렵고 실업자가 많다	48.3
11.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가 충분하지 않다	64.4
12. 환경파괴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하다	42.2
13. 기타	0.3
14. 특별한 것이 없다	0.4

주 : 1983, 1988년의 응답결과를 생략하였음.

문하였다. 한국에서는 ‘학력차별’(75.9%)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위·가문에 따른 차별’(71.8%), ‘빈부격차’(6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극소수(0.4%)에 불과하다.

각국비교를 보면, 12개의 선택지 중 50% 이상

의 응답율을 보인 항목의 수는 한국이 모두 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영국이 5항목, 필리핀이 4항목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한 항목은 ‘학력차별’이 한국과 일본의 2개국, ‘실업’이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의 3개국, ‘빈부격차’가 태국, 브라질의 2개국이며, ‘성·인종차별’은 미국, ‘치안풍속’ 문제는 러시아, ‘환경파괴’는 독일의 1개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통해 각 사회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들을 엿볼 수 있다.

○ 자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

[문 25] 당신의 나라가 무언가 자랑할만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을 있는대로 골라 주십시오.

	1993
1. 역사·문화유적	70.5
2. 자연·천연자원	22.7
3. 문화·예술	29.8
4. 신앙	8.9
5. 스포츠	13.2
6. 과학·기술	6.9
7. 교육수준	21.7
8. 장래의 발전가능성	30.5
9. 생활수준	3.7
10. 사회복지	1.5
11. 사회의 안정성	0.8
12. 자랑할만한 것이 없다.	5.6

주: 1983, 1988년의 응답결과는 생략하였음.

자기가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자랑할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복수응답식으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역사·문화유산”(70.5%)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래의 발전가능성”(30.5%), “문화·예술”(29.8%)이 3할 안팎의 응답율을 기록했으며, “사회의 안정성”(0.8%), “사회복지”(1.5%)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체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보다는 과거의 문화유산이나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독일, 스웨덴을 제외한 9개국에서 “역사·문화유산”이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고 그중 7개국에서는 1위를 점하고 있다. “자연·천연자원” “문화·예술”은 8개국에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고 이중 “자연·천연자원”은 스웨덴, 필리핀, 브라질의 3개국에서 1위로 나타내고 있다.

○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에 관해서 세항목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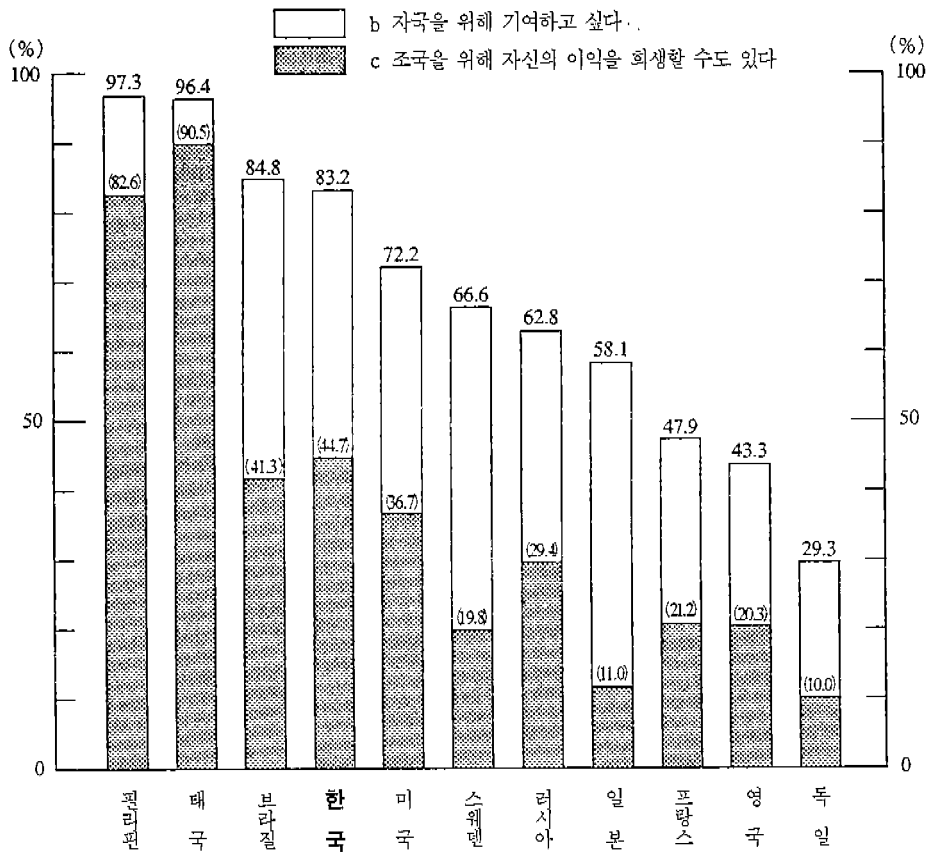
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각각의 질문항목에 관해서 긍정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a ‘한국인이라는

[문 26] 다음의 설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관해서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1983	1988	1993
a. “한국인”(각국마다 해당국가명 사용)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그렇다	81.4	86.0	87.3
2. 아니다	10.4	9.6	12.6
b.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1. 그렇다	88.4	87.4	83.2
2. 아니다	6.3	8.7	16.8
c. (b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1. 그렇다	73.1	62.2	53.7
2. 아니다	18.1	31.6	45.4

〈그림 20〉

자국과 자신과의 관계 (b, c : 긍정응답의 비율)



금지'가 87.3%, b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가 83.2%, c '국가를 위한 희생의사'가 53.7%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응답결과의 변화를 보면,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가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또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도 매회 10%안팎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국가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a 국가에 대해 금지를 느낀다는 응답율이 필리핀, 태국, 미국의 3개국이 90%대에 달하고 한국은 스웨덴, 브라질과 함께 80

%대를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며 독일이 39.0%로서 가장 낮다.

b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에서는 필리핀, 태국이 96% 이상의 높은 긍정율을 보였고 한국은 브라질에 이어서 4위이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긍정응답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한 c '국가를 위한 희생의사'에서도 역시 필리핀, 태국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긍정하고 있고, 한국은 이들 국가와 큰 격차를 두고 3위이며 일본과 독일이 10%대로서 긍정응답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전체적인 응답정향을 보면, 국가에 대한 긍지에 있어서는 선후진국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와 희생의사에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높은 긍정율을 나타낸 반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율을 보이고 있다.

○ 자국민에 관한 이미지

[문 27] 당신은 한국인(해당국가명 사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이 있다면 모두 골라 주십시오.

	1983	1988	1993
1. 근면하다	61.7	76.5	63.3
2. 지적(知的)이다	10.7	11.4	12.8
3. 실체적이다	32.5	37.8	39.0
4. 허영심이 있다	69.5	63.9	72.5
5. 관대하다	19.5	27.7	27.3
6. 용감하다	17.6	18.5	19.5
7. 예의바르다	58.9	63.4	49.4
8. 거만하다	11.4	12.6	23.4
9. 진보적이다	13.2	18.2	15.0
10. 평화애호적이다	49.1	50.6	39.9
11. 신뢰할 수 없다	11.8	10.7	18.1
12. 별다른 특색이 없다	1.9	1.8	1.4

자국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복수 응답식으로 질문했다. 한국에서는 “허영심이 있다”가 72.5%로서 1위이며, 이어서 “근면하다”(63.3%), “예의바르다”(49.4%), “평화애호적이다”(39.9%), “실체적이다”(39.0%)의 순이며, “지적이다”(12.8%), “진보적이다”(15.0%)의 응답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연도별 비교를 보면 상위 5항목의 순위에서 “허영심이 있다”가 1983년 1위에서 1988년에는 “근면하다”와 자리바꿈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다시 1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자국민의 이미지로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항목은 “근면하다”가

일본, 독일, 스웨덴, 필리핀, 브라질의 5개국, “허영심이 있다”가 한국과 미국의 2개국이며, 영국은 “거만함”, 프랑스는 “신뢰할 수 없다”, 태국은 “예의바르다”, 러시아는 “평화애호적이다”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자국민의 이미지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임에 비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인생관관계

○ 종교관

[문 28] 인생에 있어서 종교가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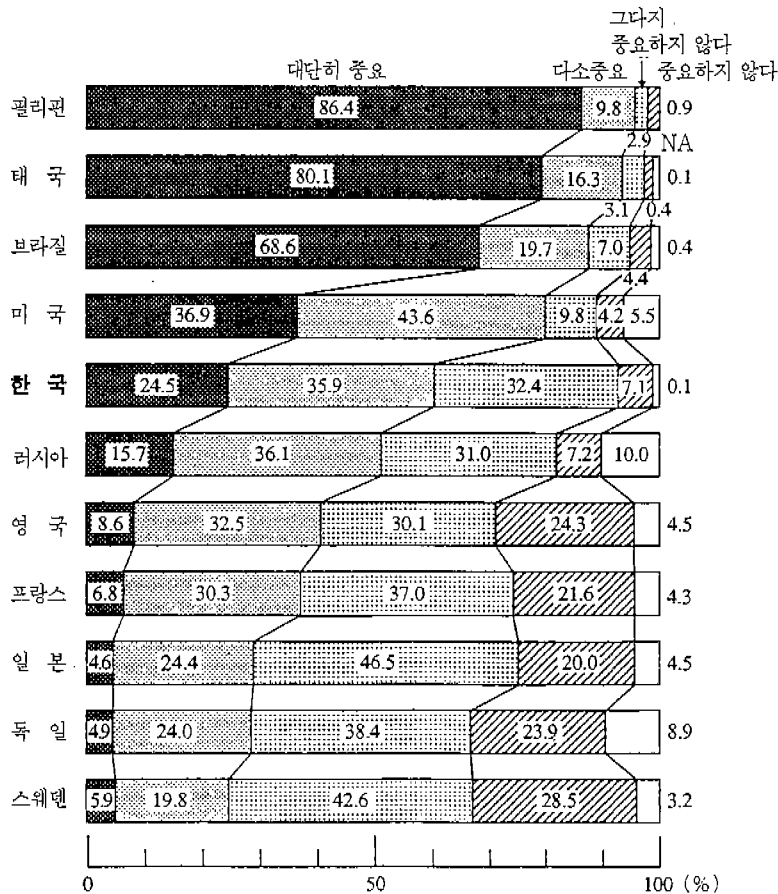
	1983	1988	1993
1. 매우 중요하다	31.1	26.8	24.5
2. 다소 중요하다	37.3	40.9	35.9
3.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6.5	25.3	32.4
4. 중요하지 않다	3.8	5.6	7.1

종교의 중요성에 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다소 중요하다”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32.4%)가 이보다 조금 낮은 응답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비교를 보면 “매우 중요하다”와 “다소 중요하다”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는 한편 ‘중요하지 않다’(선택지 3,4)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선택지 1, 2)은 한국을 포함한 필리핀, 태국, 브라질, 미국, 러시아 등 개국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이 모두 개발도상국인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

〈그림 21〉

종교관



독일, 일본 등 선진 5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

○ 인간의 삶의 방식

[문 29] 세상은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다음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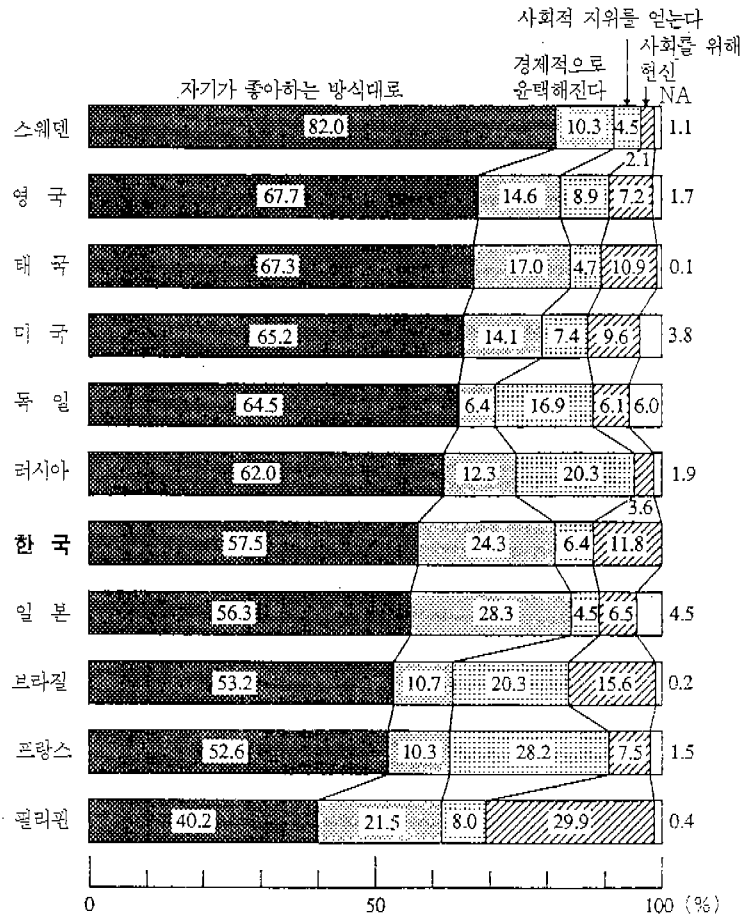
	1983	1988	1993
1.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	21.8	16.1	24.3
2.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	6.6	7.2	6.4
3.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산다	49.1	59.4	57.5
4.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21.0	16.3	11.8

삶의 방식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산다”가 57.4%로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의 응답율이 가장 적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산다”는 1983년 조사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응답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청소년들의 의식이 점차 사회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필리핀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산다”가 50% 이상

〈그림 22〉

삶의 방식에 관한 의견



의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 항목에 대한 응답율에 있어서 한국은 7위로서 중간그룹에 속해 있다. 한편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운택해진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고민이나 걱정거리

[문 30] 현재 당신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1993
1. 공부문제	33.9
2. 진학문제	30.9
3. 취직문제	37.5
4. 직장에서의 문제	14.7
5. 가족문제	20.3
6. 친구나 동료문제	19.7
7. 이성교제문제	23.8
8. 성(性)에 관한 문제	3.5
9. 금전문제	28.3
10. 정치나 사회문제	7.6
11. 성격문제	25.9
12. 건강문제	19.4
13. 용모문제	16.9
14. 기타	2.2
15.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	4.5

청소년들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취직문제”가 37.5%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공부문제”(33.9%), “진학문제”(30.9%)의 순으로서 학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이 가장 많았으며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는 청소년은 극소수(4.5%)에 불과했다.

국가비교를 보면, 한국에서는 4위에 머문 “금전문제”가 다른 모든 국가(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2,3위의 높은 응답율을 보인 ‘공부’와 ‘진학’이 3위권내에 들어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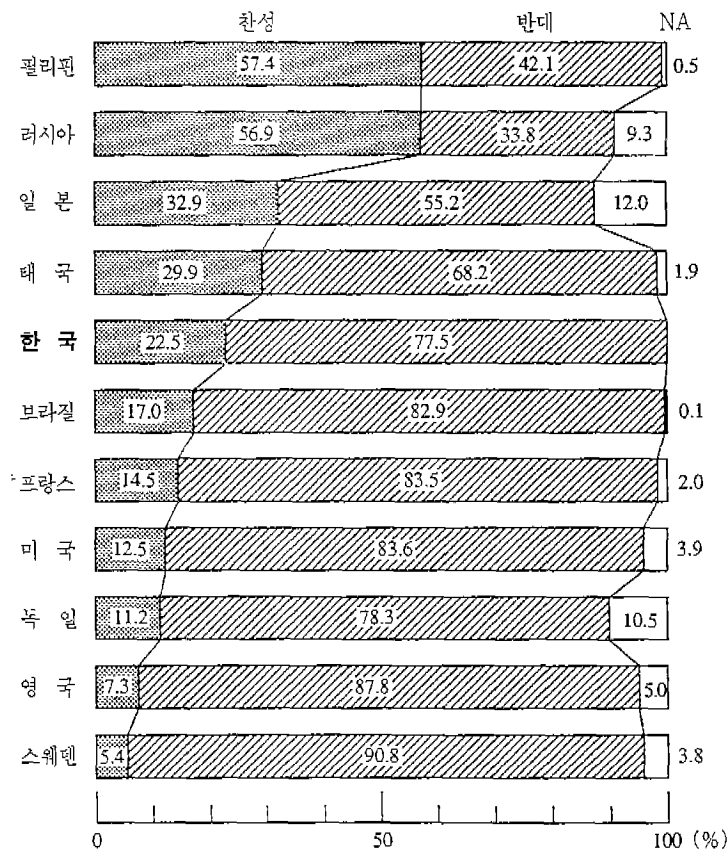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율에서는 브라질의 45.2%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1할을 넘고 있음에 비해 러시아(5.9%)와 한국(4.5%)만이 현저하게 낮은 응답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한국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며, 그 내용이 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남녀의 역할

일과 가정에 관한 남녀의 역할에 관하여 “남자

〈그림 23〉

남녀의 역할관



[문 3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3	1988	1993
1. 찬성한다	41.8	35.9	22.5
2. 반대한다	53.7	60.7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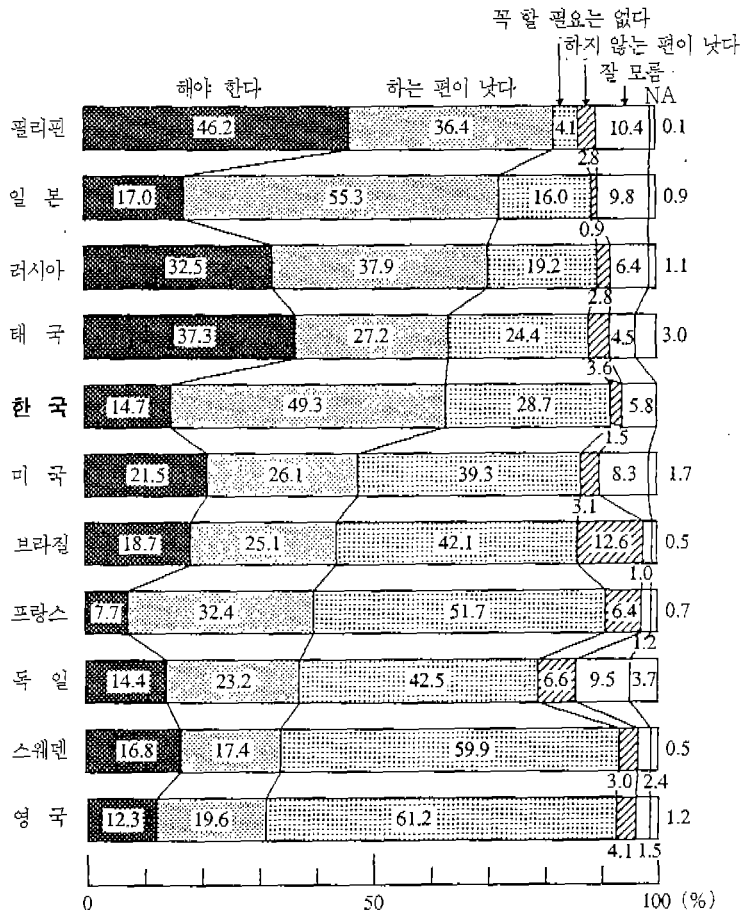
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부를 묻는 형태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77.5%)하였고

찬성하는 응답은 1/5 남짓한 수준이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찬성응답의 급격한 감소와 반대응답의 급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율에서 필리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일본, 태국, 한국의 순이며,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찬성응답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찬성응답율이 높은 것이

〈그림 24〉

결혼관



특정적인데, 선진국에서는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높은 찬성응답율을 나타내어 한국보다도 10%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결혼관

[문 32] 당신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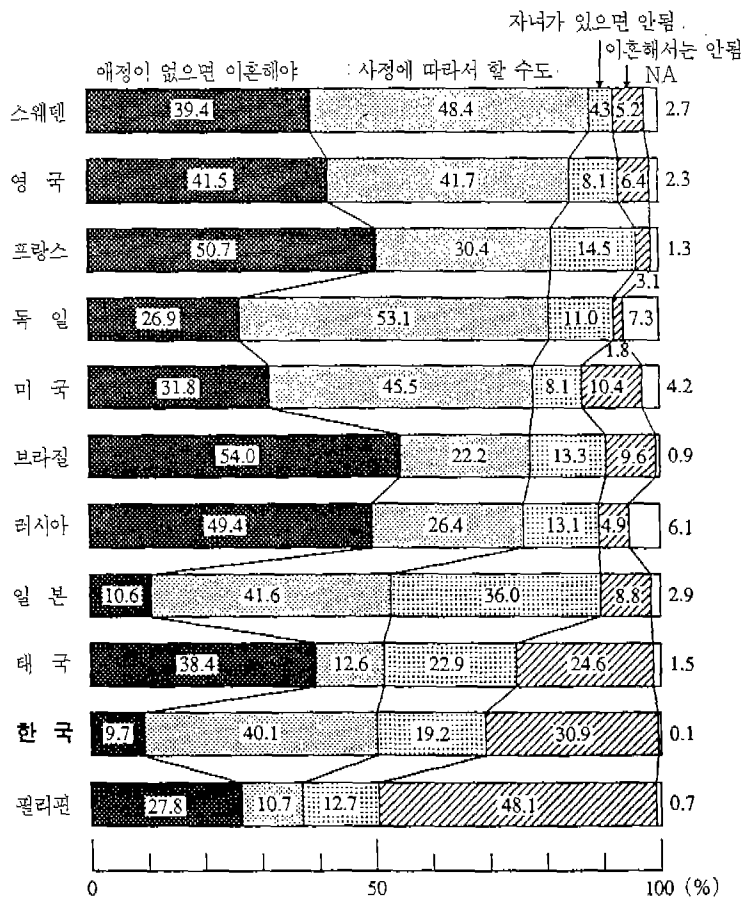
	1983	1988	1993
1. 누구나 결혼은 해야 한다	13.2	9.5	14.7
2. 결혼하는 편이 낫다	45.0	45.7	49.3
3.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37.8	42.6	28.7
4.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1.0	1.1	1.5
5. 잘 모르겠다	2.9	0.7	5.8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약한 긍정'(49.3%; 선택지 2) 의사를 표시하였고, '약한 부정'(26.7%; 선택지 3)이 그 다음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응답이(선택지 1,2) '부정' 응답(선택지 3,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연도별 변화에서는 '부정'응답이 점진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한국 청소년들의 보수적인 결혼관을 엿볼 수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긍정과'가 '부정과'를 상회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 일본, 러시아, 태국, 한국, 미국의 6개국이며, 역으로 '부정과'가 '긍정과'를 앞서고 있는 나라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독일 등 유럽·남미의 5개국이다. 앞서 문항

〈그림 25〉

이혼관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진국중 유독 일본 청소년들만이 결혼 ‘긍정파’가 두드러지게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 이혼관

이혼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있건없건간에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40.1%)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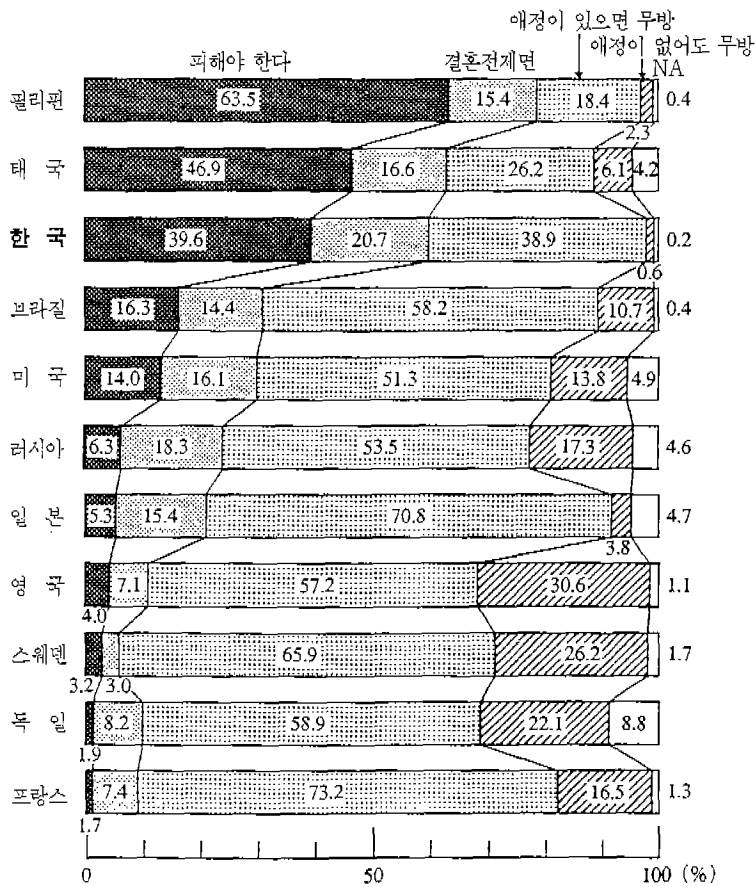
[문 33]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3
1. 일단 결혼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30.9
2. 자녀가 있으면 이혼해서는 안되지만, 없다면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다	19.2
3. 자녀가 있건없건간에 사정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다	40.1
4. 서로 애정이 없다면 이혼해야 한다	9.7

주 : 1993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임.

〈그림 26〉

혼전 성관계



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30.9%)가 그 다음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혼에 관한 ‘중간+부정파’(선택지 1,2)가 50.1%로서 ‘부정파’(49.8%; 선택지 3,4)를 매우 근소한 쪽으로 앞서고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필리핀과 한국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긍정파’가 ‘중간+부정파’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관과 더불어 이혼문제에 대한 한국청소년들의 의식은 보수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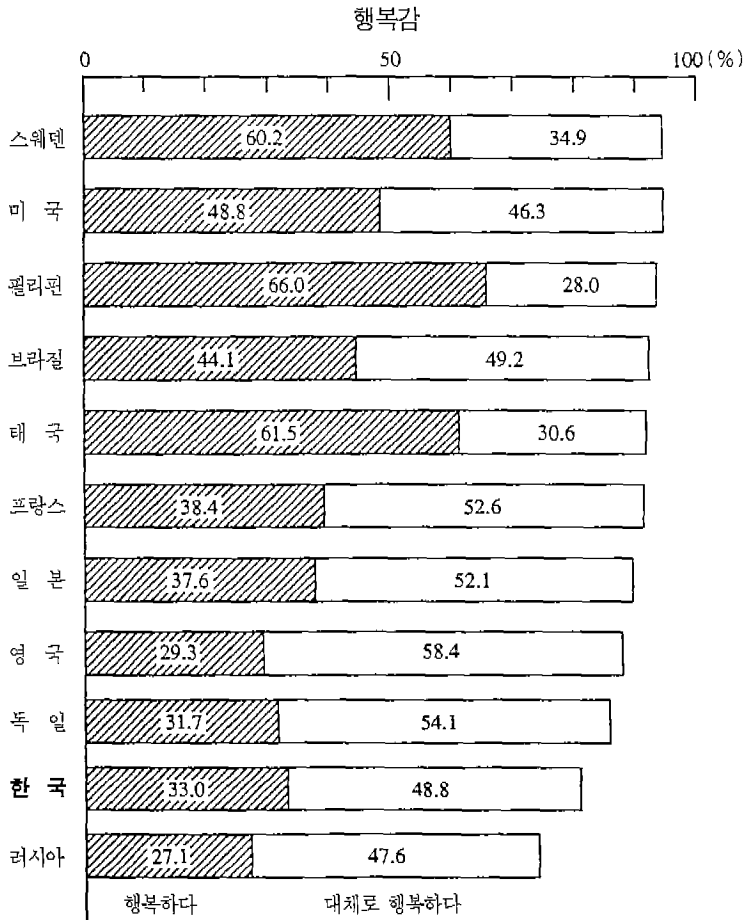
○ 혼전 성관계

[문 34] 당신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3
1.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39.6
2.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무방하다.	20.7
3. 서로 사랑한다면 무방하다	38.9
4. 사랑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0.6

주 : 1993년에 문항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

〈그림 27〉



혼전의 성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39.6%)이 “서로 사랑한다면 무방하다”는 의견(38.9%)과 엇비슷한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밖에 약 1/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찬성을 표시한 반면, 무조건적인 찬성(선택지 4)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각국비교를 보면 필리핀, 태국, 한국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고, 그밖의 8개국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면 무방하다”가 가장 많았다.

○ 행복감

[문 35]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988	1993
1. 행복하다	26.5	33.0
2. 대체로 행복하다	46.2	48.8
3.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	18.5	16.2
4. 행복하지 않다	7.5	1.9

주 : 1988년에 새로 추가된 문항임.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행복하다”(33.0%)의 순으로서 전체적으로 ‘행복하다’(선택지 1,2)는 응답이 ‘불행하다’(선택지 3, 4)를 크게 앞서고 있다. 전회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행복하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불행하다’는 응답은 감소경향에 있다.

각국비교를 보면 ‘행복하다’는 응답이 모든 국가에서 7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비록 다른

나라들과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들의 ‘행복하다’는 응답율이 러시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III. 요약 및 정리

이 조사는 특정한 가설에 기초하여 이를 검증해 가는 분석적인 조사연구라기 보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태도를 살펴보는 여론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결과해석에 필수적인 통계적인 데이터들은 생략된 채 각 국가를 독립변인으로 한 응답결과와 단순빈도만이 제시되어 있어, 이 조사결과로부터 한국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어떤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하고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관계 :

- 한국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즉 부모와의 의견대립이 잦은 편이며,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서 “부모의 이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의사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 한국의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는 편이며, 다른 나라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교육에 있어 그다지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들은 엄격한 부친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한국청소년들의 전체적인 가정생활 만족도는 조사대상 국가들중 러시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학교·학력관계 :

-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으로서 다른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대학성적이나 전공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청소년들은 일류 대학 출신인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실업이나 빈부격차 등의 문제보다는 학력차별을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다.

-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주로 금전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에 비해 한국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조사대상 국가들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직업·직장관계 :

- 한국청소년들은 선진국 청소년들과는 달리 일을 하는 목적으로 수입 이외의 요인들도 중시하는 편이며, 따라서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무언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한국청소년들의 직장에 대한 정착의식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실제로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 한국청소년들은 직장에서 업무 이외의 인간적인 접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직장생활 만족도는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친구·지역사회 :

- 한국청소년들은 다른나라 청소년에 비해 이성친구가 적은 편이며, 교우관계의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사회(동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들은 최하위권에 속해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사회·국가관 :

- 한국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극히 낮은 편이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 묵인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시정하겠다는 '행동파'의 비율이 조사대상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한국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허영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서 우리사회의 현실보다는 과거의 문화유산이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들고 있다.

- 한국청소년들은 다른나라 청소년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나 국가를 위한 희생의사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인생관관계 :

- 전통적인 남녀역할관, 결혼의 당위성, 이혼 문제, 혼전성관계 등 남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들은 다른 개발도상 국가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